

ifez 인천경제자유구역
Incheon Free Economic Zone

인천경제청, 지난해 이어 ‘송도 행복텃밭 가꾸기’ 추진…오리엔테이션 개최
 지난해 농부를 멘토로 식용작물 재배·잡초 제거 등 통해 작물 수확

- 1 -

- 송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미누 준준알라씨는 “멘토로 선정돼 참가자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게 되어 기쁘다. 지난해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삶의 활력소를 찾았고 딸과 함께 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. 특히 마트에서 구하기 어려운 허브와 야채를 심어서 요리도 하고 직접 수확해서 먹으니 맛있었다”며 “지난해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 정보들을 참가자들과 나누겠다”고 말했다.
- 정경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“행복텃밭 사업이 지난해 외국인들로부터 인기가 높아 올해도 다시 추진케 됐다”며 “이번 행복텃밭 가꾸기가 거주 외국인들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삶의 활력소를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”고 밝혔다.
- 한편 인천경제청은 외국인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 올해 초부터 △외국인들이 모국의 설날을 소개하는 세계의 설날문화 행사 △우리나라 여성들의 화장법과 피부 관리법을 공유하는 K-뷰티 메이크업 강좌 △외국인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마인드 성장 워크숍 등을 진행했고 앞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.